

문화탐방

제주돌담

제주대학교 강사 강정효

제주의 돌담은 남태평양의 바람을 이겨내며 선인들의 삶의 지혜가 깃든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별다른 보호대책은 없었다. 개발이라는 이름의 불도저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해왔던 것이다. 농업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에서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기도 했다

J E J U D E V E L O P M E N T F O R U M

지난 2003년 9월 제주를 강습했던 태풍 매미는 제주시와 고산지역의 순간 최대풍속이 초속 60m로 종전의 최고기록을 갈아치운데 이어 10분 동안 바람 세기의 평균값인 최대풍속도 각각 초속 39.5m와 51.1m를 기록, 지역 관측 값 기록을 경신했다. 성산포도 순간최대풍속이 초속 37.6m를 기록, 이전 관측 기록을 깨뜨렸다. 그리고는 사망 2명을 비롯해 1만여ha에 이르는 농작물 침수와 농업시설 파손, 정전·도로침수, 각종 시설 파손 등 큰 피해를 냈다.

우리나라 기상청이 구분하는 태풍의 단계와 파괴력을 보면 초속 15m일 때 건물 간판이 떨어지는 수준이고 25m에서는 지붕이나 기왓장이 뜯기는 수준, 35m에서 기차가 넘어지고 40m에서 사람이 남아갈 정도이고 60m이면 철탑이 휘어질 정도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2003년의 순간최대풍속이 초속 60m를 기록했다는 것은 제주의 바람이 얼마나 강했던 것인지를 쉽게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제주의 들판에 널려 있는 돌담은 거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육지부에서 수많은 산사태가 발생하고 축대가 무너지며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던 것과는 달리.

그런데 제주의 돌담을 보면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엉성하게 쌓여 있음에 보는 사람마다 놀라곤 한다. 그 강한 바람을 도저히 이겨낼 것 같지 않음에도 그 많은 태풍의 강풍을 이겨내며 오늘까지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제주 돌담에는 옛 선인들의 지혜와 과학이 살아 숨 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주밭담〉



제주 돌담의 시작

제주에서 돌담은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 기록과 실재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록에 의하면 고려 고종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문선(東文選)에 의하면 ‘제주도는 난석(難石)이 많고 땅이 건조하여 본시부터 논이란 없고 다만 밀 보리 콩 조 따위만 나는데 그나마 옛적엔 내밭 네밭의 경계가 없기 때문에 힘이 센 집에서 나날이 남의 것을 누에가 뽕을 먹듯 침범하므로 모든 힘없는 백성들이 괴로워하더니 김구(金丘 1211-1278)란 이가 관관이 되어 온 뒤에 백성들의 고통을 듣고 돌을 모아 밭에 담을 두르게 하니 경계가 분명해지고 그 뒤부터 백성들이 편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돼 있다.

지포(止浦) 김구는 고려 고종 21년(1234)에 제주에 관관으로 부임했던 인물로 기록에 의하면 고려 조정에서 처음으로 보내왔던 제주관관인데 그 뒤 한림원으로 옮겼고 훗날 벼슬이 평장사에 이르렀다. 부안 김씨의 중시조로 문정공(文貞公)의 시호와 함께 도동서원(道東書院)에 배향하였다.

동문선의 기록에 의하면 돌담의 용도는 뚜렷해진다. 힘 있는 토호세력들이 힘없는 백성의 땅을 빼앗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경계의 목

적이라는 얘기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제주에 돌담이 없었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부분의 시각은 그 이전부터 존재했었는데 김구판관에 의해 계획적이고 대규모로 정리 사업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애월읍 금성리에서 발굴된 성곽양식이나 삼양동 집자리 유적, 외도동의 우물유적에서 보면 돌을 쌓았던 흔적이 나타나는데 이미 탐라국 시대에 경계의 개념으로서 돌담은 존재했다는 얘기가 된다.

그 목적도 경계선의 개념이 아닌 바람막이의 기능이 더 강했으리라 추정된다. 그러다 후대 농경사회에서는 농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밭의 정리라는 목적까지도 확장됐을 것이다. 농경이 시작된 이후 밭에 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땅을 척박하게 만들어 농사를 짓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즉 밭에 씨를 뿌리려면 땅을 갈아엎어야 하는데 돌이 많으면 그만큼 작업이 힘들어지는 것이다. 밭의 구석진 곳에 돌을 쌓아 경작지의 잡석을 제거해 한 곳에 쌓았던 ‘머들’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17세기에 제주에서 보고 느낀 것을 기록한 김상헌의 남사록(南槎錄) 풍물(風物)편 기록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백성은 곤궁한 자가 많다.--이 땅에는 바위와 돌이 많고 흙이 덮인 것이 몇 치에 불과하다. 흙의 성질은 부박(浮薄)하고 건조하며 밭을 개간하려면 반드시 소나 말을 달리게 해서 밟아주어야 한다.--내가 밭가는 자를 보니 농기구가 매우 좁고 작아 마치 아이들 장난감 같아 물으니 대답하기를 “흙 속에 몇 치만 들어가도 모두 바위와 돌이니 그래서 깊이 밭을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는 내용이다.

바람을 이겨내는 지혜

어쨌거나 돌담이 만들어짐으로 인해 사유재산의 경계가 뚜렷해지고 방목중인 말과 소가 무단으로 들어와 곡식을 먹는 피해를 방지하게 된다. 그리고 남태평양에서 시작되는 제주의 강한 바람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고 사람들의 생활에서 추위를 막아내는 역할까지도 돌담의 몫이었다.

간혹 면적이 넓은 밭을 보면 경계지점이 아닌 밭 가운데로 끝까지 이어지지 않은 돌담을 쌓은 경우를 보게 된다. 밭의 가장자리에만 돌담을 쌓을 경우 바람을 막아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다시 돌담을 쌓았다는 얘기다. 결국은 돌담이 어느 정도의 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오랜 경험을 통해 터득

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지난 92년 서울대의 김준호교수는 돌담의 과학적 측면을 발표한 바 있는데 김교수에 의하면 돌을 외줄로 쌓아올려 빈틈이 생긴 홀담(외담)은 불어오는 바람을 찢는 파풍효과(破風效果)가 있다고 밝혔다.

즉 돌과 돌 사이의 틈을 통해서 바람이 찢어지면서 그 세력이 약해진다는 것이다. 만약 겹담에 센 바람이 불어 담을 넘게 되면 그 너머에 영향을 주는데 이 때 담 높이의 두배나 되는 범위까지 그 힘이 작용해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제주의 선인들은 수백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바람을 찢어 그 세력을 약화시키되 돌담은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축담기술을 터득했고 오늘날의 돌담은 그 기술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틈새와 파풍효과〉



이와 관련 일본의 역사소설가로서 ‘가도를 가다’등 41권의 기행문시리즈를 쓴 시바 료타로(1923-1996)는 86년 펴낸 탐라기행(98년 학교재에서 번역서 출판)에서 “돌담은 틈새가 많다. 살며시 밀기만 하여도 허물어질 것 같은데 거뜨히 견디니 참으로 명인의 솜씨랄 수밖에 없다.”라고 극찬한 바 있다.

돌담의 길이

제주의 돌담은 그 길이가 얼마나 될까. 돌담의 길이에 대해 많이 쓰이는 표현이 ‘흑룡만리(黑龍萬里)’라는 용어다. 다소 추상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는데, 제주대 송성대 교수는 ‘제주인의 해민정신’이라는 책자를 통해 ‘흑룡만리(黑龍萬里)’리 하여 총 연장이 9700리에 이른다고 표현한 것이 그 시초로 전해진다.

이와는 달리 2007년 농림부에서 시행한 농림기술개발사업인 ‘제주도 농촌

지역내 돌담 문화자원의 활용을 위한 농촌 경관보전 직불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제주도 돌담의 총 길이를 3만6355km, 이 중 발담은 2만2108km로 추산했었다.

이는 제주도내 6개 지역을 표본으로 조사한 1평방킬로미터 범위내의 평균 돌담 길이인 4만796km를 제주도 전체 경지면적인 541.94평방킬로미터로 곱한 수치이다. 이를 근거로 제주도에서는 지난 1월 돌담밭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될 당시 돌담의 길이를 2만2108km로 소개했다.

〈제주돌담〉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당시 필자도 조사에 참여했기에 그 내용을 아는데, 당시 조사지역, 즉 표본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6개 지역은 신촌, 고산, 대정, 애월, 성산, 남원 등으로 신촌은 이미 경지정리가 이뤄진 지역이다. 대정도 부분적으로나마 경지 정리된 곳이 포함되고 있다. 남원의 경우 과수원으로 개간되며 훼손이 급속도로 진행된 지역이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지역이 모두 일주도로변이라는 것이다. 중산간 지역으로 확장한 경우 그 오차는 엄청 커질 것이다.

또한 단순히 지목이 경지로 돼 있는 경우만을 산정한 것으로 밭으로 개간됐음에도 지목이 임야로 남아있는 경우, 또 마을 안 주거지 등은 제외된 수치다. 때문에 당시 용역진도 용역의 주목적이 길이 추산이 아님 전제로, 읍면의 시가지 면적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대추정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더 나아가 정밀한 계측은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제껏 이러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돌담을 보호하자는 얘기, 심지어는 세계문화유산으로 가자는 얘기까지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 돌담의 가치를 그만큼 인식하지 못했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 차제에 전수조사까지는 못 가더라도 우선적으로 대표성 있는 표본을 갖고 새로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올해 내에 세계농업기구(FAO) 세계농어업유산자원 등재를 신

청할 방침이라는데 더더욱 시급히 선행돼야 할 부분이다. 제대로 된, 납득할 만한 통계자료는 있어야 할 것 아닌가.

돌담의 종류와 형태

돌담이라 하면 어디 말 그대로 돌로 쌓은 담이다. 그렇다면 어디까지를 돌담으로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그 위치와 용도에 따라 울담, 올렛담, 축담, 발담, 성담, 잣담(잣성), 원담, 산담, 개경담 등으로 나뉘볼 수 있다.

먼저 울담은 집 울타리를, 축담은 집의 외벽을 이르는 말이고 올렛담은 마을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통로, 즉 골목길을 가리킨다. 이 중 축담은 단순한 돌담이 아니라 돌과 흙이 어우러진 것으로 돌을 쌓아올린 후 흙에 보릿짚 등을 섞어 반죽한 진흙으로 구멍을 채워 평평하게 만든다. 제주의 초가에서 축담은 집의 앞부분에 위치한 난간과 오늘날 보일러 용도인 굴뚝, 부엌인 정지의 출입문 등 문을 제외한 모든 벽면이 이에 해당한다.

〈제주돌담〉



제주의 마을 구조를 보면 각자의 개인 집에 해당하는 축담과 울담을 거쳐 올렛담으로 마을과 이어지고, 마을 안에는 개별 마을마다 중심부에 돌로 쌓아올린 정자인 땃돌이 있고 마을의 한쪽 구석에 돌로 쌓은 탑인 ‘방사탑(탑, 담, 거옥대 등으로 불린다)’과 역시 오래된 고목 아래 돌담으로 울타리를 두른 본향당이 위치하게 된다. 식수원인 샘의 경우도 돌담으로 쌓았고 바닥에도 역시 돌담을 깔아 깔끔하게 정비했었다.

최근 돌문화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라 할 수 있는 올레는 마을 안길에서 집의 대문격인 정낭까지 이어지는 공간으로서 길 양옆을 돌담으로 쌓았다. 대부분이 구불구불 곡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이는 바람의 영향을 분산시켜 그 힘을 약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한편 돌담의 형태로는 크기는 한 줄로 차곡차곡 올려 쌓은 외담과 넓게 쌓는 겹담으로 나뉘는데 다시 겹담에서는 맨 아랫부분에는 작은 돌맹이로 빈틈 없이 여러 겹 쌓아올린 후 그 위에 큰 돌로 쌓는 백켓담, 산담에서 볼 수 있는 양식으로 양옆을 굽은 돌 두 줄을 쌓고 그 사이에 잡석을 채워 넣는 겹담 등으로 나뉘볼 수 있다.

〈겹담과 백켓담〉



이 중 폭이 넓은 겹담이나 잣길, 잣백 등은 농경지의 돌이 많은 밭에서 지속적으로 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때 돌담으로 다 처리가 안 되면 밭의 모퉁이 또는 일정 지역에 돌탑처럼 쌓아올려 처리한 것이 ‘머들’이다. 밭주인이 잡석을 처리하는 용도로 쌓은 잣백 등은 안쪽에 위치한 밭 소위 맹지(진입로가 없는 밭)에서는 통로로 이용하기도 했다.

〈잣백과 머들의 변형〉



외담은 어찌 보면 아무렇지 않은 듯 그냥 쌓아올린 양식이나 오늘날의 사람들이 이처럼 쌓아보면 큰 바람이 한번 불면 그냥 무너지고 만다. 바람 많은 섬 제주에서 외담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비결은 바람의 특성을 이해한 후에 쌓았기 때문이다. 돌담을 다 쌓은 후 한쪽에서 흔들었을 때 돌 전체가 흔들거려야 제대로 쌓은 외담으로 인정해준다. 그렇지 않으면 바람에 바로 무너져버리기 때문이다.

제주도를 돌아 보면 지역마다 약간씩 돌담형태에 차이를 보인다. 바닷가 주변의 경우 돌 자체가 둥글고 울망줄망한 것이 특징인데 한림과 한경지역 그리고 구좌읍 동북리 해안도로가 이에 해당된다. 또 구좌읍 세화와 상도리의 경우 밭의 면적이 작아 대부분의 돌담이 곡선의 멋을 풍긴다. 중산간지역의 경우 담을 쌓은 돌의 부피가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애월읍 괏지리와 한림을 귀덕리의 경우는 농지에 워낙 돌이 많은 관계로 대부분의 밭담이 겹담양식을 취하고 있다. 주변 지형지질에 따른 돌담의 형태 변화도 느껴볼 수 있는데 한경면 청수리 등 곳자왈 지역에서는 화산탄으로 구멍이 숭숭 뚫린 돌로 돌담을 쌓고 있다.

〈귀덕리 밭담〉



보존대책 시급한 돌담

제주의 돌담은 남태평양의 바람을 이겨내며 선인들의 삶의 지혜가 깃든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별다른 보호대책은 없었다. 개발이라는 이름의 불도저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해왔던 것이다. 농업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에서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기도 했다.

올레를 비롯한 마을 안의 돌담도 예외는 아니다. 모든 것이 돌로 시작된 돌로 마무리됐던 제주의 전통 마을도 70년대 새마을운동을 거치며 대대적으로 탈바꿈, 원형이 사라지게 된다. 제주에서의 새마을운동은 마을안길을 시멘트로 포장하는 것과 지붕개량이라는 이름으로 초가지붕을 스테트로 바뀌는 게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기까지 했다. 이어 80년대 이후에는 농촌에서 경운기가, 그리고 최근에는 자가용 차량이 도입되며 곡선으로 좁다란 골목길, 즉 올레가 허물어지면서 벽돌로 바뀌는 운명을 겪게 된다.

급기야 2006년 10월 문화재청이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의 돌담을 등록문화재로 지정 예고까지 했지만 이 또한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문화재 지정이 무산됐다. 지금도 국가중요농업유산, 세계농어업유산자원으로 간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문화재 지정 이후의 규제를 떠올리고 있다. 때문에 경작하는 농민, 나아가 제주도민들에게 돌담은 보호해야 할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는 경관직불제를 시행해 더 이상의 훼손을 막는 한편 경관이 우수한 일정 지역을 매입해 별도의 문화재로 지정, 원형을 보호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만일 주민의 반발이 우려된다면, 최근 매입을 완료한 세계자연유산지구의 발담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아울러 돌담축제를 통한 석공연합회 조직, 돌담 전수학교 개설 등 돌담 문화를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갈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관광1번지라는 제주를 미래는 세계자연유산이라는 천혜의 자연자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그 자연환경과 더불어 삶을 영위했던 선조들의 지혜가 어우러진 독특한 문화유산이 더해질 때 더욱 가치가 빛날 것이다. **JDI**